



지귀의 운이 가고 천신의 운이 오는도다

地鬼

天神

신축년 새해가 밝아왔다. 지난 경자년은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어지러운 한 해였다. 이맘때면 송구영신이란 말을 늘 하게 되는데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이지만 수도자(修道者)의 입장에서 때에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은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시기(時機)로서 즉 인간의 생사(生死)가 결정되는 엄중한 시기

하늘에는 다 그 때가 있다. 소위 천시(天時)를 말하는데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운(地運)이 가고 천운(天運)이 오고 있는 때이다. 지귀(地鬼=마귀)는 사방의 신으로 죽는 세상을 주장하고 천신(天神)은 영원한 생명의 신으로 죽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강증산 선생은 “묵은 하늘(지귀=마귀)이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도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새 하늘(천신=하늘)은 사람 살리는 공사만 본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묵은 하늘(마귀)이 지배하는 죽음의 세상을 보내고 새 하늘(마귀)을 이기신 하나님(천신)이 다스리는 죽음을 없는 세상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송구영신의 참된 의미가 될 것이다. 이는 강증산 선생의 표현을 빌린 것일 뿐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 “씩씩한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방이 이같이 삼키바 되리라(고린도전서15:54).”고 하였는데 이 구절의 이면에는 썩고 죽는 지금이 세상은 생명이 사방에 삼켜져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사방(마귀)이 생명(하나님)을 이기면 죽고 생명(하나님)이 사방(마귀)을 이기면 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마귀(사방)가 하나님(생명)을 이긴 세상 즉 죽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생명)이 마귀(사방)을 이길에 따라 죽음을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시기인 지금은 결국 인간의 생사(生死)가 결정되는 엄중한 시기에 들어왔다는 의미이니 소위 천지개벽의 시간대에 들어왔다는 말이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매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24절후에 맞추어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때를 모르는 자를 절부지(節不知) 곧 “절부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지금은 미륵불(정도령)이 인생을 추수하는 시기로서 쭉정이는 불구렁이에 던져지고 알곡만 추수하게 되는데 그 미륵불을 만나 알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흑호이전중입운(黑虎以前中入運)의 마지막 시기가 곧 흰 쥐띠 해와 흰 소띠 해가 된다 - 『중입자생(中入者生)』

그래야 영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쥐띠해와 소띠해에 해당하는 자축(子丑)은 어두운 시간대이기에 어둠의 신이 활동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을 겪지만 그 다음에 인묘(寅卯)가 되어야 어둠이 물러감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신축년의 의미를 먼저 시간상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하루 중 축(丑)의 시간대는 사경(四更: 새벽 1시-3시)으로 어두워서 길이 보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삼경(三更: 밤 11시~새벽 1시)에 해당하는 자시(子時) 즉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앞이 보이지 않아 꼼짝할 수가 없었다. 어두운 시간대에는 어둠의 신(마귀)이 활동하므로 사람들이 길목을 못 잡는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전 지구촌이 갈팡질팡 큰 혼란을 겪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다.

그래서 자축(子丑)은 미정(未定)이라는 말이 있으니 자축에는 어두워서 갈 길이 보이지 않아 아직 정(定)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라는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귀(육신의 영)가 사기는 대로 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하는 즉 반대생각을 받고 심령의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묘(寅卯) 사까지(事可知)이다. 인묘가 되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길이 보이게 되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된다는 뜻이 된다.

검은 호랑이(黑虎)의 해 이전이 되는 신축년 즉 흰 쥐띠 해와 흰 소띠 해가 중입(中入)의 마지막 시기이며 이때 생미륵불(정도령)을 따라야 구원

격암유록에 “선입자망(先入者亡), 중입

자생(中入者生), 말입자사(未入者死)”라고 하며 “흑호이전중입운(黑虎以前中入運)”이라 했으니 흑호는 60갑자에서 임인(壬寅)이나 흑호 이전인 신축이 중입의 마지막이 된다. 신축년까지 인생을 추수하는 미륵불(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60갑자는 60년마다 돌아오니까 어떤 신축년 인지는 각자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의미상으로 보자면 축(丑)은 소(牛)를 의미한다. 우리가 보통 “두각(頭角)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러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모양을 일컫는 말이다. 두각은 ‘마두우각(馬頭牛角)’의 줄임말로 풀이하면, 말은 십이지지의 오(午)이고 말머리에 뿔이 돋으면 소(牛)가 된다. 마두우각은 ‘만인 위에 뛰어난 구세주’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한자와 동양철학을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결국 소(牛)로 상징되는 분이 바로 하늘의 뜻(영원한 생명)을 지상에 실현(지상천국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牛)자를 보면 사람 인(人)자와 십(十)자가 합쳐져 있으니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十)을 모신 사람(人)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 울음소리 “음메~”는 영적인 암마(정도령)를 부르는 소리요 뜻 달라는 소리이다. 동시에 영적 암마(정도령)가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도 되는 것이다. 도(道)의 젖은 소위 감로해인을 비유한 것으로, 세상 음식은 삼시 세 끼 꼬박 먹어도 결국에는 굶어 죽지만, 도의 젖인 감로해인은 삼순구식(三旬九食) 즉 한 달에 아홉 번만 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즉 사람 속의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 감로해인을 모르면 정도령을 결코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그 마지막 주인공 미륵불(구세주 정도령)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甘)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격암유록에 “시모자생(偷謀者生) 중모자사(衆謀者死)”라는 구절이 있는데, 풀이하면 “감(甘)나무를 피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세상 무리를 피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말로서 말세에는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찾아 도를 닦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따르는 자가 감이 익은 것처럼 스스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 밥이 될 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온 힘을 기울여 영생학을 실천해야 한다

감이란 초여름부터 열리게 되는데 많이 열리지만 또한 많이도 떨어진다. 비나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많이 떨어진다. 감이란 감(甘)나무 즉 미륵불(정도령)을 따르는 자를 상징한다. 정도령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어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영생만 얻으려 하기 때문에 정작 미륵불을 따르다고는 하나, 각각의 사정과 신앙의 자세가 달라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수수 떨어진다. 감이 익으면 해서 “감아, 열리려거든 떨어지거나 말고 떨어지려거든 열리거나 말아라.”라고 말한 고인(高人)도 있는 것이다. 감(甘)나무의 진액(감로해인)을 받아먹는 데 온 힘을 기울이면 그 감이 떨어지지 않고 잘 익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감(甘)나무에 붙어있는 힘이 약해서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도 떨어지는 것이다. 잘 익어가다가도 잘 익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순간 까치가 와서 쪼아 먹기도 하는 것이다. 마귀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감(甘)나무와 하나가 되어 죽자 살아 매달려 있어야 한다.

전 지구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인류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다. 단순한 전염병으로 치부하지 말고 지운이 가고 천운이 오는 즉 죽음의 세상이 가고 죽음을 없는 세상이 온다는 천시의 흐름을 모른다면(節不知: 절부지) 아무리 영웅, 문장가, 학식이 높은 자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비라 할 수 없고 비록 우부우녀(愚夫愚女)라도 천시를 안다면 높은 선비라 할 것이다. 천지공사의 흐름이 이러할진대 만에 하나라도 이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치지 않는다.*

고서연구가 / 박명하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99>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생존한다”

생각이 흐려지면 피가 썩는다. 나를 의식하면 피가 썩는다. 육신을 부리면 피가 썩는다. 이 사람이 선포한 새로운 말씀을 과학자들이 앞으로 실험해볼 것이다. 첨단 과학자들이 풀지 못하고 해매는 미지의 문제를 여기서 풀어주고 있다. 소련의 과학자가 고주파 활영기로 사전을 찍어보니 사람 몸에서는 강한 광선이 나오고 나뭇잎에서는 약한 광선이 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그 빛이 무엇인지 연구를 거듭했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사람의 몸에서 광선 물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며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의 물질이 쏟아져 나와 모든 만물에 스며 들어가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내 몸 얼마나 아십니까 - 뇌

사람이 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돌이나 죽은 나무토막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과 활동이 없으면 나이 들어 무서운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몸무게의 2% 정도를 차지하지만 평상시 움직이는 데 전체 산소 소모량의 20%를 소비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0%가 흐릅니다. 뇌는 중추신경계 중에서 그 기능이 매우 발달된 부위로 물질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곧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뇌는 대뇌, 소뇌, 간뇌, 뇌줄기로 구분됩니다.

대뇌(大腦, cerebrum)는 좌우 2개의 반구로 나누어 있으며, 표면에는 주름이 많아 표면적이 매우 넓습니다. 대뇌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겹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여 있는 회색질이고, 속질은 신경 섬유가 모여 있는 백색질입니다. 정보의 기억, 추리, 판단, 언어, 감정 등 정신활동 등 대뇌 기능의 대부분은 겹질에서 담당합니다.

대뇌 겹질은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 4개의 엽으로 구분되며, 각 엽 내에서 기능별로 감각영, 연합영, 운동영으로 구분됩니다. 감각영은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연합영은 감각영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하여 명령을 내리며, 운동영은 수의 운동과 골격근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소뇌(小腦, cerebellum)는 대뇌의 뒤 반구로 나뉩니다. 대뇌와 함께 골격근을 조절하여 수의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간뇌(間腦, diencephalon)는 대뇌 반구와 중뇌 사이에 있으며(사이뇌), 시상과 시상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상(視床)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대뇌의 적절한 중추로 선별하여 전달하는 중계소 역할을 담당함

김주호 기자

이슬성신이란?

성경, 불경을 비롯한 각 종교의 경전과 고대 예언서, 비결서에는 빛과 같은 이슬이 하나님의 신이며 그 이슬 성신을 몸에서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으로서 이긴자,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 진인이라고 예언해 놓았다. 이슬은 자아의식을 멸하고 성령을 완전히 회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으로 성경 상에는 빛난 이슬(이슬성신) 불

경, 노자의 도덕경, 강증산의 중화경 상에는 감로(甘露), 대열반광(大涅槃光), 법성광명(法性光明), 고예언서 격암유록, 정감록 상에는 감로해인(甘露海印), 삼풍해인(三豐海印)으로 예언되어 있다. 조희성님은 그 예언대로 이슬성신 감로를 내린다. 감로를 직접 받고 있는 수많은 체험자의 증언과 이슬성신이 찍힌 동영상이 사진으로 증거가 된다.*

경축 41회 이슬성신절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2021년 1월 1일